



“제주에 코로나블루 극복 안심치유센터”

어제 의회 전문가 간담회서
코로나블루 진단·처방 제안
고도원 원장 “포스트코로나
국민 치유·힐링 절실”...
권역별 치유센터 필요 제기



6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블루의 사회적 위기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고도원 국립산림치유원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코로나 블루(우울증)’에 대한 권역별 거점 국민안심치유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강성민 의원실과 송재호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블루의 사회적 위기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고도원 국립산림치유원장(아침평지문화재단 이사장)은 ‘코로나블루 예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치유 방안’ 주제발표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민의 치유와 힐링이 절실한 시기’ ‘지금 은 사회적 힐링이 필요한 시대’임을 강조했다.

고 원장은 “사회적 힐링은 사회 구조적 모순 및 갈등을 치유해 양극화의 중립지역을 넓혀가는 것”이라면 서 보편적 치유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조직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힐링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고 원장은 제주지역의

사회적 힐링 장기 추진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의 연대를 통한 사회적 힐링망 구축과 권역별 거점 국민안심치유센터 지정 등을 제안했다.

고 원장은 공공분야의 산림치유, 치유농업, 해양치유를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권역별 거점 국민안심치유센터 지정 및 심사와 관리 업무 등을 맡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심치유센터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권역별 거점 국민안심치유센터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경기, 강원, 대구·경북, 부산·경남,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전북 등 7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고 원장은 사회적 힐링의 단기 추진 방향으로 도내 시설 및 치유 자원을 연계한 사회적 카렌시아 조성과 제주 청정 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지역화 등을 주장했다.

리조트 등 시설에 치유프로그램을 결합시켜 국민이 찾을 수 있는 사회

적 카렌시아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의 숲 해양 등 다양한 치유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힐링 서비스 확산으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이승아 의원은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제주 산업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처방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심의문턱 못 넘은 ‘화장품 특구’의 꿈

정부,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주도 계획 협상 대상 제외

정부가 6일 3차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했던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심의위원회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를 열고 3차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지정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9일 특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규 특구 7개 곳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개인 맞춤형 화장품에 초점을 둔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했지만 심의위 전 단계인 정부 협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유전자 기반 개인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계획(안)에는 피부유전자 검사를 비롯해 맞춤형

화장품 기반 구축을 위한 유전정보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13억원(국비 60억·지방비38억·민자15억)을 투입해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벤처마루, 바이오융합센터, 서귀포혁신도시, 용암해수단지 일대 등 5곳에 실증 특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해 왔으며,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3차 규제자유특구에는 11개 지역에서 17개 특구 사업을 신청했고, 이중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7개 지역이 신청한 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코로나 막아라”... 해수욕장 현장 점검

도, 이달부터 점검반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투입, 방역 관리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지정 해수욕장 11곳을 찾아 코로나19 방역관리 이행 상황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지정 해수욕장은 협재·금능·곽지·이호·삼양·함덕·김녕 등 서귀포시 7곳과 신양·표선·중문·화순 등 서귀포시 4곳 등이다.

도는 ‘코로나19 예방 제도 해수욕장 운영 계획’에 따라 행정, 소방, 보건, 경찰, 해경, 마을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꾸려진 코로나19 대응반에 이어 현장점검반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들 통해 해수욕장 내 감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관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응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이행 상황을 중점 파악해 현장 조치하고 해수욕장 이용객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행정지도까지 병행한다.

다만 해수욕장에서 37.5°C 이상의 유증상자나 의사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별도의 격리 장소로 즉시 이동해 20~30분 후 2차 체온 측정을 시행한다. 이때 해당 이용객과 접촉한 이용객이 있다면 보건소 검사와 역학조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해수욕장내 격리장소에서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백금탁기자

네오플 아카데미 참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취업 연계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인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에 참여할 인재를 모집한다.

올해는 8월부터 3개월간 2D 그래픽·운영되며, 네오플의 현직 아티스트 및 외부 전문가가 실무 맞춤형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생들에게는 수업료, 숙식 등이 무료로 지원되며, 성적우수 교육생은 네오플 정규직 채용 기회가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4일까지 네오플 공식 블로그(https://neoplog.blog.me)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과경별 12명씩 24명을 지역·학력 제한 없이 선별한다. 이태윤기자

“3년만에 또?”... 대중교통 노선조정 ‘제동’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 최근 회의서 부적절 결정
용역 시행 타당성 불인정... 道 “계획 보완 재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3년을 맞아 노선 조정을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열린 올 상반기 수시2차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도 대중교통과가 요청한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용역(용역비 1억원)’ 사업에 대해 ‘부적절’ 결론을 내렸다.

도가 지난 2017년 8월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첫 용역을 통해 노

선별 이용실태 분석 및 전반적인 노선 조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학술용역심의위는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노선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용역사업 추진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도는 모니터링 및 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자체 추진 시 시간이 오래 걸려 용역 추진이 필

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담당부서는 추진계획서를 새롭게 설계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당초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이용 불편지역의 노선(시간표) 체계 보완 및 개선을 통한 노선 최적화와 노선버스 운영 및 이용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 도출 필요성에 따라 7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용역 과업에는 노선별 최적 운행시간과 운행대수 등 제시와 제주시·서귀포시내 중·고등학교 통학실태 조사 등도 담길 예정이었다. 오은지기자

JTP, 컨설팅 희망 기업 모집

제주테크노파크(JTP)가 온라인을 비롯한 전시마케팅, 품질 강화 전문 상담이 필요한 기업들을 모집한다.

JTP는 오는 9일까지 ‘2020년 지역 강소기업 육성 특성과 프로그램 및 지역 스마트콘텐츠 개발 환경 조성사업’에 참여할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제품 온라인 마케팅 분야는 기업별 각 1000만원, 전시회마케팅은 기업별 각 200만원이 지원되며, 디지털콘텐츠 품질역량 컨설팅의 경우엔 전문기관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본사가 제주에 있는 ICT분야 디지털콘텐츠 기업인 JTP 제주산업정보서비스(www.jeis.or.kr)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한다.

백금탁기자

지원자 격화대!!

폐업 후,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사업장 구축 및 홍보 비용 업체당 최대 700만원, 경영컨설팅 2회 및 재창업 교육 1회 지원

<희망더하기 재기지원사업 공고 안내>

- 신청자격: 공고일(20.05.25)기준, 도내 거주자로 폐업 이력이 있는 ① 신규사업자 등록 2년 미만인 소상공인(가)나, (2018.05.27. 이후 사업자등록) ② 재창업 예정자로,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11월 30일까지 사업장 개시가 가능한 분)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폐업 전 사업 영위 기간 최소 1년 이상 - 폐업 후 1개월 이상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2020.04.26 이전 폐업자) - 도내에서 사업장 구축해야 함 - 매장면적 50평 이하
- 모집기간: 20년 7월 1일(수)~7월 15일(수)
- 지원내용: 사업장 구축 및 홍보 비용(업체별 최대 700만원) - 경영컨설팅 2회 제공, 재창업 교육 1회 제공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jejusc.kr
문의 064.758.5710-1

홈페이지 공고문 바로 확인하기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2020문화재활용사업

제주향교 탐라선비의 꿈을 잇다.

탐라선비 교양강좌

- 현대사회의 선비정신과 유림의 역할 I II III - 7월 11(토), 12(일), 25(토) 오후 3~5시 - 前 제주도정무부지사 문태수 원로
- 제주의 전통세시풍속 - 7월26일(일) 오후 3~5시 - 제주향교원로회장 진용일

- 무료강좌 · 화차별 20명 선착순 모집
- 장소: 제주향교 명륜당 [제주시 서문로 43(용담1동)]

문의 | 064-757-0976 / 064-742-0105

주최: 문화재청 ·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향교

제주향교 전교 부성 종

※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방역지침에 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래정씨 제주도청년회 정기총회

2020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2020년 7월 10일(금) 오후 7시
- 장소: 황금어가(제주시 복지로5가 11) T. 753-8253
- 주요 안건: 1. 동래의 맥 2호 발간에 따른 결산 2. 청년회 결산보고 3. 임원 개선
- 연락처: 상임부회장 동성 010-2931-2244 부 회 장 재철 010-9898-6666 총 무 이 사 성훈 010-6546-7080

동래정씨 참의공파 제주도청년회 회장 정신권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특화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01 원치용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